



다카시 후지타니·제프리 화이트·요네야마 리사 엮음, 『위험한 기억』(Takshi Fujitani · Geoffrey M. White · Lisa Yoneyama eds., *Perilous Memories: The Asia-Pacific War*, Duke University Press, 2001).
도미야마 이치로 엮음, 『기억이 말하기 시작한다』(富山一郎 編, 『記憶が語り始める』, 東京大学出版会, 2006).
마크 갈리치오 엮음, 『예측할 수 없는 과거』(Marc Gallicchio ed., *The Unpredictability of the Past: Memories of the Asia-Pacific War in U.S.—East Asian Relations*[*American Encounters/Global Interactions*], Duke University Press, 2007).

역사 읽기

끝나지 않는 전쟁을 기억하다

김효진

1. 들어가며

21세기에 접어든 지 어느덧 10년이 지난 2010년에도 우리를 둘러싼 정세는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21세기의 개막과 함께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사건에 뒤이은 테러와의 전쟁,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아프가니스탄 내전은 오바마 정권이 집권한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도-파키스탄 등의 지역분쟁으로 불리는 무력충돌을 동반한 국가 간의 갈등은 오히려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시작한 20세기의 마지막 10년,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주창한 '역사의 종말'이 학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이런 상황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진 빈 자리를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가 채움으로써

* 지은이 | 김효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그리고 '문화유산에서 민가로: 교마치야 재생운동과 교토의 지역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하버드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연구분야는 오타쿠문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 일본사회의 대중문화 및 젠더 정치학이며 주된 논문으로는 '교마치야재생운동의 명암: 니시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3집 1호, 2010), "귀여운 역사는 가능한가? 『헤타리아』를 통해 본 초국가시대의 일본 오타쿠 문화"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 28집, 2009)이, 역서로는 『남자는 원래 그래?』(중앙랜덤하우스, 2006)가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 재직중이다.

찾아올 것으로 믿었던 역사의 종언은 결코 오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전지구화라는 흐름 속에 강화된 자본의 착취와 다양한 종류의 지역과 민족 및 종교분쟁 —지역화되고 세분화되어 오히려 그 범위를 확대한 전쟁—이었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 예견했던 미래와 가장 동떨어진 현재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의 주장에 대해 제기되었던 반론들을 새삼스레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식의 주장이 가능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흔들림 없는 시간의 단선적인 계열에 의해 성립”¹⁾하는, 정치체제 및 국민국가 간의 문제로 환원하는 역사관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며, 한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과거가 현재, 미래로부터 단절되어 있다”²⁾는 근대 역사학의 기본적인 자세와 공명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근대 역사학이 노정하는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부터 이미 6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고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지금에도 과거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역사수정주의로 대표되는 반동적인 흐름의 등장으로 인해 오히려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과거의 재현에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왜 과거가 지금 다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어떤’ 과거인가? 근대 역사학이 목표로 삼은 과거의 실증적 재현은 이런 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을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에서 기존의 역사를 비판하면서 내세우는 증거오류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본 서평이 다룰 세 권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기억(memory)과 기억하기

1) 富山一郎 編, 『記憶が語り始める』, 東京大学出版会, 2006, 226쪽.

2) 같은 책.

(remembering)에 주목하는 것은 기억이 지닌 현재성과 가능성 때문이다. 기억과 기억하기란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뜻한다. 기억은 과거가 현재와 분리되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관심에 따라 재구성되고 재생산된다는 사실, 즉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매개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분명 전쟁은 끝났으나 그 형태를 바꾸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끝난 것, 완료된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망각의 저편에서 머물러 있는 과거 또한 유령처럼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이 책들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명명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0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전쟁을 둘러싸고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기억의 전쟁(memory war)은 이런 의미에서 과거를 둘러싼 논쟁인 한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틀 짓고 구성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며, 이 기억은 또다시 현재의 상황을 통해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코 투명하거나 균질적이지 않다. 기억을 말한다는 행위는 언제나 우리 내부의 감정을 소환하여 새로운 상황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³⁾ 그리고 이런 인식은 기존의 좁은 의미의 역사학을 벗어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학문으로서 역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문에서는 우선 이 책들을 관통하는 논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서술한다. 20세기 중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과 그에 관한 기억을 둘러싸고 이 책들이 제기하고 있는 세 논점은 첫째, 전쟁의 명명과 기억, 둘째, 지속되는 전쟁과 기억, 마지막으로 기억의 가능성과 한계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의 논점들에 대해 각각의 책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세 권의 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추가로 세 권의 책을 묶는 커다란 배경으로 미국의 그림자에 대해 짧게 언급하면서 서평을 끝맺도록 하겠다.

3) 같은 책, viii-ix쪽.

2. 횡단하는 기억들: 전쟁과 기억에 관련된 논점들

전쟁을 기억하기 (1): 전쟁의 명명과 기억

세 책에서 공통적으로 논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중요한 것은 바로 20세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명칭인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과 추축국의 대립과 연합국의 승리라는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파시즘을 격퇴한 ‘선한 전쟁’으로서 유럽 및 미국의 우월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간적·시간적으로도 유럽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나치와 홀로코스트로 상징되는 독일에 의한 전쟁범죄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됨으로써 이에 포함되지 않는 주변부의 전쟁경험과 기억이 가려진다는 점에서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벌어진 전쟁을 다룰 때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역사가들은 다양한 공간성과 시간성을 고안해 냈다. 『위험한 기억』 및 『예측할 수 없는 과거』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 중 가장 일반적인 전쟁에 대한 시각은 이 전쟁을 미국 및 연합국과 일본의 대립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시간적으로는 일본의 진주만공격이 일어난 1941년을 전쟁의 개시로 보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있었던 1945년을 전쟁의 종결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쟁의 초점은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 및 연합군과 일본, 양측의 군사적 대결에 맞추어지게 되며 명칭 또한 ‘태평양전쟁’이 가장 합당하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 지배적인 기억은 “미국이 일본에 대항해 싸운 단일한 전쟁”⁴⁾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전쟁기념관에서 묘사되는 전쟁은 미국과 일본 간의 전투를 중심으로 그려지며 이때 전쟁은 일본과 미국 간의 군사적 충돌로 묘사된다. 그

4) Takshi Fujitani, Geoffrey M. White, Lisa Yoneyama(ed.), *Perilous Memories: The Asia-Pacific War*, Duke University Press, 2001, p. 6.

러나 이는 태평양전쟁을 “중요한 역사적 주체로서 단일한 미국과 단일한 일본만이 존재하는 군사적 충돌”로서 묘사하고자 하는 미국의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반영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사람들은 모두 배경, 혹은 강대국의 충돌이 일어나는 전장으로 그려진다.”⁵⁾ 토착 사회의 공간성과 시간성,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를 지워 버린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갈리치오가 지적하듯이 태평양전쟁이라는 명칭은 “일본의 진정한 싸움은 미국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것으로 중국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일본을 정당화”할 위험 또한 배태하고 있다.⁶⁾

한편, 일본에서 이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은 1930년의 군부쿠테타로부터 1945년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15년간의 기간 동안을 어디까지나 예외상태, 즉 순조로웠던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비정상적인 궤도를 밟았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천황을 포함한 일본인들은 군부의 엘리트들에 의해 희생된 단일하고 균질의 집합체”로 보는 이런 기억하기는 “국가적 희생자의식”(national victimology)을 생산해 냈다는 것이다.⁷⁾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15년전쟁’이라는 명칭 또한 한편으로는 일본제국주의의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의 군사적 진출을 묘사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이런 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고 볼 수 있을뿐더러,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그 이전에 식민지화된 한국과 타이완, 더 나아가 오키나와와 홋카이도의 문제를 일본제국주의의 역사에서 제외시킨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 및 사회들에게 전쟁의 기억은 언제나 다양하고 이질적이다. 한국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을 1910년의 한일병합과 떼어 놓고 생각

5) *Ibid.*, p. 6.

6) Marc Gallicchio(ed.), *The Unpredictability of the Past: Memories of the Asia-Pacific War in U.S.–East Asian Relations(American Encounters/Global Interactions)*, Duke University Press, 2007, p. 7.

7) Takshi Fujitani, Geoffrey M. White, Lisa Yoneyama(ed.), *Perilous Memories*, p. 7.

할 수 없는 것처럼, 중국인에게 있어 1930년대 일본의 침략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의 청일전쟁 또한 이 전쟁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논의된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15년전쟁 등의 명칭은 지나치게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내러티브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국가와 사회들을 주변화하며, 동시에 전쟁을 전후한 식민주의와 냉전의 역사를 망각시키려는 함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명칭이 가장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명칭이 갖는 정치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더 나아가 필자는 한국에서 아직 이 명칭이 낯선 이유를 생각해 볼 거리로 제기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아마도 일본의 식민지로서의 기억이 전쟁에 대한 기억을 여전히 압도하고 있으며, 바로 이 압도적인 기억으로 인해 아시아와 태평양전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로 인하여 현대 한국사회가 지닌 기억의 배타성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결과는 아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윤상인은 가와시마 요코의 『요코이야기』를 둘러싼 논쟁을 논하면서, “희생의 크기, 피해의 질량에 대한 공통감각은 폐쇄적 집단기억 속에서만 구성되고 유통된다”고 갈파하고 있다.⁸⁾ 한국의 특수한 상황—식민지경험에 바탕한 이등국민으로서의 전쟁체험—을 여전히 탐구할 필요성과 함께 이런 보다 보편적인 관점의 필요성 또한 진지하게 숙고할 가치가 있다.

전쟁을 기억하기 (2): 지속되는 전쟁과 기억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지배적인 내러티브에서 전쟁의 종결은 곧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과 사회들에게 있어 전쟁의 종결은 냉전체제에

8) 윤상인, 『문학과 근대와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313~314쪽.

바탕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라는 또 다른 억압의 시작이었고, 끝나지 않는 일상 속의 전쟁을 강요당하는 고통의 체험이기도 했다. 해방은 결코 해방이 아니었던 것이다.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는 『기억이 말하기 시작한다』의 서문에서 오키나와 가테나(嘉手納)기지 폭음 소송에서 끝까지 싸웠던 마쓰다 가메(松田カメ)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녀가 비행기 소리를 들 때마다 전쟁 당시 사이판에서 들었던 공습의 기억을 떠올렸다는 증언을 소개한다. 이때 공습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신체에 각인된 이 기억은 가테나 기지의 폭음을 들 때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그녀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전쟁과 일상, 과거와 현재는 이렇게 서로 공명한다.

우리들은 지금, 전쟁을 과거의 일로서 말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책 전체의 모티브가 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있어서도 전쟁은 이미 일어난 것이자 또 1945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반테러전쟁하에 우리들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를 걸어온 우리들이 있다. ……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다고 하고 개시할 수밖에 없는 일상의 삶이 있다. 그 일상에서 지속하는 전쟁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존재이다. 그러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전쟁이 지속하는 전쟁의 징후로서 떠오르는 것도 또 이 일상이다. 잊고 싶은 일과 기억하고 있는 일은 같은 장소에 있다.⁹⁾

『위험한 기억』 또한, 도미야마가 제기하는 지속되는 전쟁 속의 기억이라는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벤야민의 위기상태(state of emergency) 개념에 바탕하여 이 책은 역사에서 시간적으로 구획된 비밀상적 폭력의 순간—아

9) 富山一郎 編, 『記憶が語り始める』, ix~xi쪽.

시아·태평양전쟁과 같이 —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보다 불분명한 폭력과 잔혹성을 모호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¹⁰⁾ “전쟁과 관련되었던 폭력의 구조가 전후 정치적 배치 및 지식의 담론적 조건에 의해 어떻게 재생산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이 노력은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냉전정책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의존, 핵실험 및 핵무기의 위협과 피폭자들의 고통, 전후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침묵, 미군기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등 다양한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시도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논문 중 이런 끝나지 않은 전쟁과(의)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시사적인 것은 아리프 딜릭(Arif Dirlik)의 논문이다. 그는 1945년 8월 15일을 제2차 세계대전, 즉 ‘세계전쟁’의 끝으로 기억하는 일반적인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 그날을 전후한 전쟁의 연대기를 장장 두 쪽에 걸쳐서 빼곡히 기록하고 있다.¹¹⁾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이 논문이 씌어진 19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숨이 찰 정도로 연속되는 전쟁의 이름은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도 낯익은 것들이다. 즉, 제1, 제2차 세계대전으로 대표되는 “세계전쟁”(world war)은 “전세계적 전쟁”(worldwide war)¹²⁾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우리의 일상 속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예측할 수 없는 과거』는 전후(postwar)라는 시간성을 보다 강조한다. 국제관계라는 맥락에서 보았을 때, 전쟁의 상대국에서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나뉘고, 냉전이라는 역사적 시기에는 동맹국 대 적대국, 그리고 냉전이 종식된 지금 상호 경쟁하는 국가로서 미국, 일본, 중국의 관계는 시기별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때 전후는 역사적인 모멘트로서, 전쟁의 종결과 이어진 냉전이 이

10) Takshi Fujitani, Geoffrey M. White, Lisa Yoneyama(ed.), *Perilous Memories*, p. 21.

11) *Ibid.*, pp. 301-303.

12) *Ibid.*, p. 300.

지역의 국제관계에 가져온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앞의 두 책이 취한 ‘지속되는 전쟁’이라는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냉전 이후 아시아에서 점점 더 강도를 더해 가는 기억의 전쟁(memory war) 또한 물리적 폭력과 파괴를 동반하지 않을 뿐, 그 밀도와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억은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어지겠지만, 각각의 국민국가적 맥락, 혹은 국제관계 속에서 강조되고 변형되며 침묵되고 잊히는 동시에, 그 자체가 정부 혹은 지배적 내러티브의 통제를 벗어나는 영역에 존재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분명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이 세 권의 책은 ‘지속되는 전쟁’이라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을 기억하기 (3): 기억의 가능성과 한계

이 책들은 (1)과 (2)에서 살펴보았던바, 내부적인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명명법 및 지속하는 전쟁이라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즉 기억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역사학 및 국민국가 중심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세 권의 책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억이 단순히 기존의 역사학을 보충하는 존재, 혹은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 조작되는 대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잉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동일한 출발선으로 삼고 있으나, 이 잉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세 권의 책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에 기여하는 것이 세 권의 책 모두 각기 다른 필자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주요한 저서들이 서구 열강으로 대표되는 주요 참전국의 전쟁 참가와 승리라는 내러티브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 비교해 볼 때, 이 책들이 그와는 반대로 논문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기억의 산재성과 모호성을

고려해 볼 때 시사적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책은 기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위험한 기억』의 경우, 「서문」에서 ‘방법론으로서 기억’(memory as method)이라는 부제하에 기억에 대해 개인적·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기억을 사회적·공적·집합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언급한다. 특히 집합적 기억하기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재현의 매체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접근—역사학, 문화인류학, 문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은 자칫하면 개인과 사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등의 낯익은 이분법에 쉽게 휩쓸릴 위험성이 있다. 이런 이분법을 벗어나는 사례로서 저자들은 전후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세대의 기억을 통해 자신이 바로 그 장소에 ‘없었으나 있었다’고 표현하는 빈센트 디아즈(Vincent M. Diaz)의 발언 및 파편화된 기억을 내러티브로 구성함으로써 개인적 기억하기와 집단 기억, 그리고 역사 간의 유동적인 관계를 보여 주는 마리타 슈터켄(Marita Sturken)의 ‘문화 기억’(cultural memory)이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¹³⁾ 또, 이런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학제적, 더 나아가 탈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억을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 저자들은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로 명확한 입장 설정을 유보한다.¹⁴⁾ 왜 이런 유보가 일어나는가? 가장 큰 이유는 『기억이 말하기 시작한다』에서 나리타 류이치가 분석했던 ‘증언’의 시대의 특징이도 한, 기억의 사실성 및 복원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다룰 때 여전히 중요한 이슈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기억에 대한 강조가 사실성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 사실의 회복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

13) Takshi Fujitani, Geoffrey M. White, Lisa Yoneyama(ed.), *Perilous Memories*, p. 17.

14) *Ibid.*, p. 16.

리는 입장에서, 식민지경험으로 점철된 토착 사회 및 전쟁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한 요구 등에서 기억을 통한 원경험의 복원 및 그에 수반된 사실에 대한 믿음은 정치적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책은 지적하고 있다. 이때 기억은 “과거의 사건들이 재현되고, 공유되고, 논쟁되고, 억압되고, 협상됨에 따라 진실성과 힘을 얻어 가는 과정을 탐구”¹⁵⁾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이론적으로는 유보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이 책이 꾀하는 정치적 목적에서는 피할 수 없는 난점이기도 하다(이 점에 대해서는 책소개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고 있다).

『위험한 기억』이 집합기억과 개인기억 사이의 유동적인 공간에 주목하면서도 기억의 사실성을 인정하는 절충적인 입장을 택하고 있는 데 비해, 『예측할 수 없는 과거』는 보다 엄격하게 개인적 기억과는 구분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집합기억에 초점을 맞춘다. 기억이 “과거의 재구성”이며 “과거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¹⁶⁾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앞에서 다룬 두 권의 책과 기본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지만, 한편 이 책에서는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 즉 어디까지나 개인 대 사회라는 이분법 속에서 후자에 속하는, 특정 사회 혹은 집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보다 관심이 있다. 더 나아가 “집합기억을 생산하는 데 있어 사회는 역사학자가 중시하는 증거와 법칙에 구속되지 않는다”¹⁷⁾라는 언급은 이 책이 역사학이 가진 학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기억의 가능성과 전복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기억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가장 실험적이고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역사를 말하는 것, 더 나아가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감정을 동반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때 “이 감정의 움직임은 …… 말하고자 하는 사실이 말하는 자의 내부에 달라붙어서 말 그 자체를

15) *Ibid.*, p. 20.

16) Marc Gallicchio(ed.), *The Unpredictability of the Past*, p. 5.

17) *Ibid.*, p. 6.

문제화하는 계기적 프로세스¹⁸⁾로서, 그리고 이런 감정의 움직임이야말로 새로운 상황을 이끌어 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기억이 말한다는 것은 때때로 발화자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발화자의 신체가 집합성적 신체로 변모하여 국민국가라는 내부성과 개인이 경험하는 한정된 시공간이라는 제약을 넘어설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하다.

「서문」에서 도미야마가 중국의 사상사 연구자 쑨거를 인용하여 지적하듯이 사실 그 자체의 진위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진실이 되고 비진실이 되는가라는, 상황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탐구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은 학문분과로서 역사학에서는 언제나 배제되고, 망각된다. 역사학 자체가 “사실이 말해지는 상황을 미리 제도화하여, 그 사실이 끌어오는 노여움과 고통의 감정을 상황 밖에 배제하는 장치는 아닌가¹⁹⁾”라는 물음은 바로 이런 인식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기억을 논하는 것은 결코 특수하고 좁은 범위의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의 모든 단계에 기억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기억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역사 전체를 문제 삼는다는 급진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사실 『위험한 기억』과 『기억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주요 저자들 — 대표적으로는 리사 요네야마와 다카시 후지타니 — 이 양쪽의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책의 기억에 대한 입장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였는가? 아시아 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 및 논의가 행해진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위험한 기억』이 안고 있었

18) 富山一郎 編, 『記憶が語り始める』, viii쪽.

19) 같은 책.

던 주변부 및 전쟁 피해자의 목소리가 지닌 사실성을 복원할 필요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전략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세부적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강조가 지닌 한계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맥락이 존재한다. 또한 일본 사회에 반전의식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던 전쟁체험세대의 소멸 및 점차 보수화되는 일본사회의 흐름은 역사적 사실의 축적만으로는 이런 상황에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뼈아픈 깨달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3.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세 권에 책에 관한 소개

『위험한 기억 : 아시아·태평양전쟁』(2001)

서문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편저자들인 다카시 후지타니, 요네야마 리사, 제프리 화이트가 기획한 1995년의 국제학술회의에 그 시초를 두고 있다. 199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부터 50주년이 되는 해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작업이 붐을 이루었던 해이기도 했다. 그러나 서문에서 편저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지배적인 내러티브, 즉 서구열강을 중심으로 한 “선한 전쟁”(good war)이라는 국가주의적이자 제국주의적인 담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벌어졌던 전쟁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들의 시도는 학술회의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에 봉착한다. 최초 이들이 지원을 요청한 미국의 인문학기금(Natioanl Endowment for Humanities)이 학술회의의 기획 전반에 대해 비판하면서 지원을 거부한 것이다.

익명의 심사자들은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참가자가 없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공정성을 강조한 나머지 현저하게 내용이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쓰면서 편저자들은 이 결정에 숨겨져 있는 요구, 즉 미국의 국가

주의 및 군사주의의 지지자 혹은 미국의 지배적인 관점을 반영하라는 압력을 잃어 낸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지배적인 내러티브가 유럽의 전쟁 경험 및 홀로코스트 경험에 집중되어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 편저자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많은 전쟁”(many wars)이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간성(temporality)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⁰⁾ 즉, 전쟁이 종결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억을 둘러싼 전쟁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 과거사 문제를 논할 때 연상하는 미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일본과 한국 등 국민국가의 경계로 설정되는 국가간 갈등만으로는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의 에피소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 있듯이 전쟁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경험과 기억은 선택되어 공공의 것으로 재현되는 한편, 다른 것들은 억압되고 침묵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현재의 상황, 권력의 구조에 바탕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상황에 봉착하여,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위험한 기억’(perilous memory)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된다.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불안정하고 위험에 처한 기억”이라는 의미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기억”²¹⁾이 그것으로, 이는 이 책이 목적으로 삼는 비판적 기억하기(critical remembering)의 두 가지 작업 — 지배적인 역사 의식에서 지워지고 억압된 기억들을 재생하는 작업 및 공식화된 기억들을 해체하고 그것이 수반하는 망각의 기술을 드러내는 작업 — 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 두 작업은 때로는 충돌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지배적인 서사

20) Takshi Fujitani, Geoffrey M. White, Lisa Yoneyama(ed.), *Perilous Memories*, p. 3.

21) *Ibid.*, p. 3.

에서 억압되었던 기억들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전략적 본질주의라는 문제 및 역사적 사실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에 속하는 국민국가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고, 후자의 경우 묻혀 있는 역사적 사실이 대중들에게 갖는 소구력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사실의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흔히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강력하다.

이 책의 이런 관점은 논문들의 구성에서도 드러나 있다. 서론을 제외한 16개의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묶여 있는데, 1부는 「기억의 조각들, 기억의 이미지들」, 2부는 「해방의 정치학과 시학」, 3부는 「속죄, 치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대」라는 제목하에 각각 5개, 6개, 5개의 논문이 배치되어 있다. 논문들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20세기 중반의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대립했던 미국과 일본 이외에도, 이런 지배적인 내러티브에서는 망각된 여러 전쟁들의 기억을 포괄하고 있다. 전시하 미국의 일본인 격리정책 및 일본계 미국인 병사들, 아프리카계 미국인 병사들의 일본에 대한 연대, 전후 미국에서 만들어진 진주만 습격 관련 다큐멘터리와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폭을 행했던 비행기의 스미소니언박물관 진열을 둘러싸고 벌어진 에놀라 게이(Enola Gay) 논쟁에서부터 전후 중국에 있어 난징대학살의 기억, 오키나와의 전쟁과 기억, 태평양전쟁 당시의 사진에서 보이는 태평양군도 사람들의 이미지, 1995년 현대 일본사회를 지배하는 서브컬처에서 나타나는 전쟁, 광의 전쟁에 대한 기억과 정체성, 타이완과 한국의 일제 식민지 당시의 병사들, 싱가포르의 일본점령기에 대한 기억, 히로시마의 한국인 피폭자들과 전쟁 기억의 치유를 위한 정치학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들은 결코 균질하고 매끄럽게 하나의 주제 혹은 관점으로 묶일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중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명명법에 걸맞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라는 이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국민국가 이외의 다양한

관점이 소개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빈센트 디아즈가 소개하는 꿈에 있어서 해방군으로서 미국의 의미라든지, 라몬트 린드스톰(Lamont Lindstrom)이 군사사진의 분석을 통해 보여 주는 태평양지역 군도들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진주한 연합군과 일본에 대해 보여 주었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다이애나 왕(Diana Wong)이 분석하는 싱가포르에서 일본의 점령시기를 기억하는 방식 등은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군도 일본도 아닌,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후에 만들어진 전쟁의 지배적인 내러티브에서도 소외되었던 토착사회들이 전쟁에 어떻게 동원, 착취되고 잊히지 않는 전쟁의 기억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 책이 미국이라는 맥락에서 기획되고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인 독자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꿈, 태평양 지역 군도들, 싱가포르 등이 주요 참전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주변화되고 있다면, 타이완과 한국 또한 일본제국주의의 전식민지들로서 이들의 전쟁경험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여전히 주변부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맥락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이 기억되는 방식이 전후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중국이나 일본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한국이나 타이완의 전쟁경험에 대한 논의가 일본과는 별개의 맥락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또 하나 특징은 현장의 운동가들에 의해 씌어진 3편의 논문(Ishihara Masaie, Utsumi Aiko, Toyonaga Keisaburo의 논문)이 이 책에 실려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들은 오키나와, 식민시대의 한국인 병사, 그리고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것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속한 지역사회나 종전 이후 해방된 국가에서조차 억압되었던 이들의 존재를 복권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바탕한 것이다. 편저자들은 이런 논문들이 학술적 작업들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논쟁적인 관점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런 글들이 지닌 정치성과 필요성을 고려할 필

요를 인정하고 있다. 그들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 논문들이 가진 호소력이다. 예를 들어 우쓰미(Utsumi)가 제시하는 전범으로서 처형당한 한국인 병사의 사례를 보자. 해방 이후 일본인임을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책임은 일본인으로서 추궁당해야 했던 한국인 병사들의 사례는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과거의 사건으로서만 치부할 수 없는 비판성을 갖는다.

그 외의 논문들은 크게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것과 전후 50주년을 맞이한 1995년 당시의 상황에서 전쟁을 기억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기억에 초점을 맞추는 이 책의 기획의도에서 살펴볼 때 이 중 시선을 끄는 것은, 현대 일본에서 전쟁과 상상력을 하위문화의 다양한 작품들 및 옴진리교가 가져온 전쟁의 이미지를 통해 분석하고 있는 와타나베 모리오(Morio Watanabe)와 전후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다양한 변화들을 지속되는 전쟁 및 세계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민국가라는 폐쇄적인 내부성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전쟁의 기억으로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고찰하고 있는 아리프 딜릭, 그리고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비행기의 전시를 둘러싸고 벌어진 1990년대 미국 내부의 논쟁 및 그 결과를 다루고 있는 요네야마 리사의 논문들이다. 이들의 논문은 각각 현대사회에서 잊혀지고 망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과거의 기억이 언제 어떻게 소환되고, 지금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 내는가를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이 말하기 시작한다』(記憶が語り始める, 2006)

이 책은 총 세 권으로 구성된 ‘역사를 쓰는 법’(歴史の描き方) 시리즈의 마지막 권으로, 「기억과 이미지」, 「기억이라는 주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총 7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역사를 쓰는 법’ 시리즈의 기원과 구성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 시리즈는 전후 50주년을 맞이하여 1997년경

에 시작된 미일공동연구회로부터 시작된다. 1990년대는 일본과 미국 양국에 있어서 전후 체제의 변동으로 상징되는 시기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대두한 역사학의 위기에 대해 십수 년에 걸친 공동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시리즈이다. 이런 인식하에 제1권은 『내셔널 히스토리를 배우기에서 벗어나기』(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を学び捨てる), 제2권은 『전후라는 지정학』(戦後という地政学)으로 명명되었으며, 본 서평에서 다룰 제3권인 이 책은 “극히 현재적인 쟁점인 ‘기억’을 키워드로…… 식민지와 제국주의, 에스니시티 등의 문제를 통해²²⁾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 이전에 이 책의 특징은 제목에서부터 드러난다. 기억이라는 문제를 설정함에 있어, 이 책은 기억이 ‘스스로 말한다’는, 지금까지 역사학에서 지식의 대상으로 삼았던 객체로서의 기억에서 벗어나 기억이 지닌 보다 급진적인 의미——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실린 대담에서 반복되어 언급되는 ‘두근거림’(胸騒ぎ)——을 회복하고자 한다.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말한다는 주객이 전도된 말로 우선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이 역사가 끌어낸 감정이 내부성에 연결되는 회로이며, 그것에 대한 비판적 개입이다. 감정이 내부성에 흘러들어가고 하는 회로에 의식적으로 개입하는 것, 그 곤란한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이야말로 최종권인 제3권이 해내고자 했던 것이다.²³⁾

이 책은 1부 「기억과 이미지」에 속한 4편의 논문과 2부 「기억이라는 주체」에 속한 3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라운 것은, 분명히 이 책의 모태가 미국과

22) 富山一郎 編, 『記憶が語り始める』, iii쪽.

23) 같은 책, vii쪽.

일본의 학자들이 모여 구성된 공동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자기성찰, 특히 국민국가라는 내부성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배경에 깔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단순히 미국과 일본이라는 경계선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들—일제시대의 조선영화, 오리엔탈리즘의 극복, 모더니즘과 파시즘의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및 기억의 진정성과 기억의 병을 둘러싼 정치학 등—을 파고들고 있다.

이 책에 실린 논문들 중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 다카시 후지타니, 요네야마 리사, 이와사키 미노루(岩崎稔), 도미야마 이치로는 보다 직접적으로 전쟁의 기억—후지타니의 경우 식민지 시대 일본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조선영화에서 나타나는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약간 초점을 달리하지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리타 류이치는 전쟁 경험을 말하는 형식이 전후 시기에 따라 체험에서 증언, 그리고 기억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특히 증언의 시대에 대두된 진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유의 체험에서 사실만을 꺼내어 객관화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증언의 시대는, 그러나 체험의 고유성과 당사자성을 대가로 하는 것이었다.²⁴⁾

요네야마 리사는 벤아민의 역사철학에 기반하여 미국과 일본의 폐허—9·11로 인한 그라운드제로와 히로시마의 원폭 폐허—가 환기하는 과거에 대한 회한과 후회를 현재에 개입하는 에너지로 삼을 것을 제안하면서, 한편으로는 특정한 장소에 매개되지 않는, ‘탈영역화된 기억’²⁵⁾으로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 9·11이 낳은 폐허의 기억을 트라우마로 번역하는 미국의 백인중산계급의 문화적 맥락이 기억의 국가화에 봉사하는 반면, 그에 적합하지 않은 종군위안부의 기억은 말살되는 현실을 고발하는 그녀의 관점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현재

24) 같은 책, 30쪽.

25) 같은 책, 154쪽.

한일양국에 팽배한, 국가적 맥락에 환원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생산적인 비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사키 미노루는 ‘기억이 말한다’(記憶が語り出す)는 일견 문법에 어긋나는 서술이 내포한 새로운 역사서술의 가능성과 그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위험 및 반발을 다룬다. 여기서 그는 오랜 시간동안 망각되었던 전쟁의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텍스트들에 대해 최근 흔히 제기되는 진위의 문제를 논하면서, 이런 텍스트들이 실제로는 현재의 문제들—빌코밀스키 사건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홀로코스트 피해자상의 확립, 『소년 H』의 경우는 전후 일본에 구축된 전전, 전시의 문화적 기억 등이 ‘은폐기억’으로 작동하고 있음—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기억의 이런 재구성적 성격을 실증성이라는 잣대로 부정하는 것은 기억의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지닌 진정성을 함께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변성과 불확정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체를 역사와 기억의 본질로 인식하는 감수성의 필요성을 그는 주장하고 있다.

도미야마 이치로는 억압되었던 기억을 말하는 행위에 수반되는 병적인 증상을 치료의 대상으로 처리함으로써, 체험자 개인의 내부 문제로 치환하고 듣는 자를 의사의 위치로 만드는 관습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 점령하의 1960년대 후반, 황태자 아키히토의 오키나와 방문을 앞두고 오키나와 전역에서 행해졌던 ‘정신위생건강 실태조사’를, 정신병의 치료라는 의료적 맥락으로부터 탈맥락화하여 그 당시의 사회상황 속에서 광기와 전쟁으로서의 일상의 관계성을 읽어 내 고자 한다. 그것은 사회와 질환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며, 억압받는 민중이라는 전형적인 민중상을 오키나와에 다시 부과하는 작업이어서도 안된다. “질환의 치료가 전쟁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또 재발이라는 순환 속에서 전쟁상태와 질환 사이에서 다른 관계성을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서만 “전쟁상태의 내부로부터 전쟁상태에 저항하여 전쟁상태와는 다른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대답이 도출되는 것은 추상화된 민중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성을 통해서라고 주장한다.²⁶⁾

한편, 브렛 드 베리와 하르투니언의 논문은 상대적으로 보다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중에서도 이채로운 것은 브렛 드 베리의 논문으로, 안티오리엔탈리즘을 키워드로 서구에서 생산된 일본에 관련된 두 개의 작품 — 영화 「마담 버터플라이」와 사이버소설 「아이돌」 — 을 분석하면서 인종차별이 이미 ‘과거’로 간주되는 현실 속에서 발생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의 사례를 통해 안티오리엔탈리즘의 어려움을 논하고 있다. 하르투니언은 일본의 근대사를 통해 모더니즘과 파시즘이 사실은 분리되지 않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도사카 준(戸坂潤)이라는 잊혀진 사상가의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는 것은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저자 중 도미야마, 이와사키 및 요네야마 리사가 참가한 좌담회의 내용이다. 『위험한 기억』처럼, 각각의 논문들이 기억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공통 테마를 제외하고는 문학, 영화비평, 문화인류학, 역사학 등의 영역에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자칫 산만해 보일 수 있는 이 책의 구성상 약점은 전쟁과 기억, 역사학의 문제 등 이 책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테마뿐만 아니라 기억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들 — 글로벌라이제이션, 민족국가의 미래, 기억에 바탕한 연대의 가능성 등 — 을 좌담회에서 폭넓게 논함으로써 상당 부분 극복되고 있다. 이 좌담회를 통해 계속 상기되고 강조되는 것은 기억에 주목한다는 것은 기억이 지닌 현재성, 즉 현실의 맥락에 개입하고 문제제기를 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때로는 기억의 폐쇄성으로 인해 쉽게 반동적인 흐름으로 연결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기억의 정치학이 호전적인 환경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가, 아니면 멈춰 서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생각해 보게 하는 단서가 될

26) 富山一郎 編, 『記憶が語り始める』, 220~221쪽.

것인가”라는 이와사키의 언급²⁷⁾은 기억에 관한 작업을 하는 모든 이가 숙고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과거』(2007)

앞에서 살펴본 두 권의 책이 역사학의 위기에 대해 기억이 지닌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 출판되었다면 이 책은 보다 신중하고 절충적인 입장을 택하고 있다. 일본 국제대학(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의 세미나 시리즈에서 시작된 이 책의 이런 특징은 이 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국민국가를 기본적인 단위로 하는 국제관계의 역사에 기억이 끼치는 영향 및 박물관 등에서 나타나는 공공기억의 문제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에스니시티와 인종 등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관계에 끼친 영향 및 국제관계가 NGO 등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등, 국민국가 내부에 있는 다양성과 혼종성에 대한 관심이 표현되는 한편,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기억을 동원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국민국가라는 경계선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다. 민감한 독자라면, 일본인으로는 최초로 미국역사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권위자로, 특히 국제관계에서 문화 및 사상의 영향을 강조하는 접근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리에 아키라(入江昭)의 이름이 감사의 글에 실려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 책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은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사례들이 미국, 일본, 중국에 제한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미국 내부의 문제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보다 포괄적인 접근—구체적으로는 『위험한 기억』이 시도했던 것 같은—이 가진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편저자인 갈리치오는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주된 참전국이었던 이 세 국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보다 상호 연관된 논의

27) 富山一郎 編, 『記憶が語り始める』, 256쪽.

를 시도하고, 논의의 집중을 꺾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방점은 미국의 사례에 찍혀 있으며, 특히 중국의 사례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관점을 살리기 위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닐까라는 인상이 남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서문에서 그는 전후 60주년을 맞이한 2005년의 시점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총리의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사실에 대한 항의로부터 시작된 중국과 한국의 반일태도는 특히 중국의 경우, 일본인 상점과 식당에 대한 습격으로까지 이어지는 폭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인터넷 상에서는 중국인 네티즌들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의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행해지는 등, 그 당시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도달해 있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과거사가 언제나 가장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이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갈리치오가 지적하듯이 “미일 양국관계에서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불일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²⁸⁾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일본이 협력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이런 동의는 그러나 우리가 미군기지의 재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군기지로 뒤덮여 있는 오키나와를 떠올리는 순간, 모순적인 것으로 변모한다. 즉,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국제관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시아에서 기억의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와 같이 민감한 문제인 것이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기억의 많은 형태」, 2부 「정책입안자와 역사적 기억의 사용」, 3부 「역사를 구체화하기: 박물관, 기념물, 그리고 기념관」, 4부 「범태평양적 기억들」에 전체 9개의 논문이 실려 있다. 1990년대 미국의 기억 붐(memory boom) 속에서 일어난 진주만의 기억 및 재현, 종전기에서부터 냉전에 이르기까지 미일관계에서 살펴본 기억의 역할, 중국, 일본, 미국의 전쟁박물관의 비교 및 에놀라 게이 논쟁, 미국 애리조나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

28) Marc Gallicchio(ed.), *The Unpredictability of the Past*, p. 4.

들의 반응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국제주의와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배적인 기억 속에 망각된 중국의 존재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국제관계라는 키워드를 통해 바라본 집합 기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이 기억과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은 앞의 두 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지만, 국제관계가 흔히 정치적·경제적 이익 혹은 군사력의 우위 등 물질적 힘의 우열을 통해 결정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집단 기억 및 역사적 이해가 국제관계 및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있어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 책의 입장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주로 미국과 일본이라는 단일한 주체로서 국민국가로 상정하는 국제관계학 내부의 일반적인 역사서술에 대한 또 하나의 반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상적인 것은 2부의 논문들(Haruo Iguchi, Frank Ninkovich, Takuya Sasaki의 논문)인데,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과 패전국인 미국과 일본의 국제관계가 정치경제적 이익에 의해 움직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가와 정책담당자들의 역사적 기억에 바탕한 정치적 신념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패전 직전의 일본의 상황을 둘러싼 핵사용 논쟁에서부터 점령기 정책 및 천황제 유지 정책, 그리고 냉전기 미국과 일본의 외교정책의 비교를 통해 논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논문을 몇 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1부에 실린 에밀리 로젠버그(Emily Rosenberg)의 논문은 2001년 9월 11일의 알카에다에 의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로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진주만습격이 미국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재현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미국에서 일어난 기억 붐과 위대함 세대(great generation)의 기억,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진주만」은 진주만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진주만 공격을 막아 내지 못한 책임의 소재가 사령관에게 있는지, 혹은 그 당시 민주당이 집권중이었던 정부에 있는지를 묻는 논쟁은

1990년대 당시 민주당 정권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공격과 맞물려 강화되었다. 그러나 2001년의 9·11사건은 이런 논쟁을 일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9·11은 “제2의 진주만”으로 불리우기 시작했고, 그 당시 공화당 정권은 90년대에 자신들이 지지해 왔던 진주만 공격의 정부책임론이 9·11의 정부책임론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게 된다. 진주만 공격의 이미지가 9·11의 참조항이 되는 동시에, 9·11의 기억이 다시 진주만 공격의 기억을 만들어 낸다는 과거와 현재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집단 기억이 형성되고 영속되는 모습을 그려 낸 흥미로운 논문이다.

3부의 유진 야구치(Yujin Yaguchi)가 다루고 있는 미국의 애리조나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의 사례 또한 매우 시사적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배적 내러티브를 전시하는 이곳을 일본인 관광객들은 일본에 보편적인 평화기념관과 동일시하며, 제2차 세계대전을 어디까지나 미국과 일본의 전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평화를 강조하고 미국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감상은 애리조나 전쟁기념관에서 주변화되지만, 이들 또한 진주만이 하와이 토착민들에게 지닌 의미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가려진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망각을 통해 또다시 타자를 주변화하고 있다는 그의 분석은 박물관 및 기념관 등의 기억의 장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지배하는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그를 경험하는 관람자의 문제까지 확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편저자인 마크 갈리치오의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광범위하게 공유되었으나 현대에 와서 망각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높은 평가 및 동일시의 논리를 분석하고, 이것이 그 당시 뿌리깊은 인종주의에 고통받던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해방의 논리였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통해 이들의 전쟁에 대한 기여가 재평가되고 이와 함께 미국사회 외부와 내부의 파시즘에 대한 승리라는 내러티브가 등장하면서,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의 기억은 선택적으로 망각된 채 1980년대에 이르러 서야 학술적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되게 된다.

4. 나가며: 전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드리워진 미국의 그림자

본 서평을 마무리지으면서, 본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세 권의 책을 읽는 과정에서 필자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슈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싶다. 그것은 바로 20세기 이후 이 지역의 시간과 공간에 질게 드리워져 있는 미국의 그림자였다. 지금까지도 미국을 비롯한 주류역사학에서 이 전쟁을 부르는 명칭이 미국과 일본의 충돌에 초점을 맞춘 태평양전쟁(Pacific War)이고, 세 권의 책 중 두 권이 미국에서 출판된, 영어권의 저자를 중심으로 한 영어로 쓰여진 책이며 나머지 한 권도 미국과 일본 학자들의 공동연구모임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세 권의 책에서 미국이 중요한 포커스로 등장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 사실을 지적하기 이전에 이 책들을 통해 필자가 강하게 느낀 것은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지배적 내러티브의 한 축으로서만이 아닌, 일본의 과거사 문제까지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세기 전쟁 및 기억의 문제를 논할 때 미국의 존재는 점점 더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학술적·정치적 담론의 중심적인 생산지로서 미국의 지배적 위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보다 필자는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진주만 공격과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투하는 그저 큰 그림의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전후'라는 시공간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 지속된 전쟁 — 때때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서, 베트남의 전장에서, 한반도의 휴전선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출하고 드러나는 — 과 기억, 그리고 망각이라는

맥락에서 미국의 그림자를 문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물론 이런 필자의 느낌은 전쟁책임의 당사자로서 일본의 문제를 미국이라는 보다 커다란 문제로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구도는 분명히 중요하며,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내부성 안에서 전쟁과 기억은 더욱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이라는 국민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다종성에 대한 고찰 및 세 권의 책에 참가한 학자들에게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미국의 전쟁책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던 성찰과 반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자 함도 아니다.

다만, 『위험한 기억』에 실린 에놀라 게이 논쟁에 대한 요네야마의 논문에서 드러나듯이, 일본의 전쟁책임을 강조하는 언설이 때로는 미국의 전쟁범죄 및 냉전 이후 미국의 전황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보수파에 이용되는 것 또한 현실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테러와의 전쟁을 앞세워 전 세계를 또 다른 ‘전세계적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이런 인식은 세 책에서 공통으로 보여 주듯이 특정한 국민국가라는 내부성이 성립하기 위한 필연적 조건으로 내부적 차이에 대한 억압이 존재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세계화 담론이 구가되는 21세기인 지금 왜 우리가 여전히 국민국가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본 서평을 마치고자 한다.